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CHEONGJU CRAFT BIENNALE 2025

대한민국 대표 문화매력 로컬 100

9.4. — 11.2.

문화제조창 및 청주시 일원
CULTURE FACTORY AND CHEONGJU CITY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초대국가 태국

2007년 초대국가 제도 도입 후 첫 아시아권 주빈국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동시대와 함께 발전해 온 태국의 공예를 조망합니다.

전시 감독 Gridthiya Gaweewong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국제공예공모전

공예의 동시대성과 미래성을 엿볼 수 있는 우수한 현대공예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세계적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매회 평균 6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상금 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대상(1인)에게는 6천만원의 상금이 제공됩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워크숍 및 레지던시

국내외 공예 작가를 초청하여 시연과 강연을 선보이는 <국제창작워크숍> 및 레지던시, 시민 참여로 작품을 완성하는 <함께-세상짓기 워크숍> 등이 진행됩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국제학술세미나

본전시 및 특별전 연계 강연과 세미나가 진행되는 담론의 장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맥을 이어온 전통공예부터 파괴된 환경을 돌보는 공예, 섬유 예술로 살펴보는 문화 교류까지 공예의 다양한 면모를 탐구합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동아시아문화도시

한국·중국·일본 3국의 문화유전자 '젓가락'을 테마로 협력 행사가 펼쳐집니다. 3개국의 전통을 넘어서 예술성을 품고 있는 젓가락 작품을 전시를 통해 선보이고, 젓가락 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포럼(학술)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젓가락을 통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젓가락질 경연대회, 젓가락 장단 등 축제형 놀이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열린비엔날레

시민 참여형 비엔날레로 어린이비엔날레, 공예스튜디오 체험, 박물관·미술관 네트워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어린이비엔날레	박물관·미술관 네트워크	공예스튜디오 체험
전시 주제와 연계한 '공예 놀이공간'은 어린이들을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비엔날레 기간 중 평일에는 교육과 체험활동도 진행됩니다.	청주의 국공립·사립미술관, 갤러리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제조창 본관 4층 한국공예관 공예스튜디오에서 비엔날레 기간 동안 개인·단체 체험을 진행합니다. 금속, 도자, 섬유, 옷칠, 유리 등 다양한 공예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 본전시, 초대국가전(태국), 국제공예공모전,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특별전

행사 교육, 학술, 어린이 비엔날레 등



청주공예비엔날레 소개

청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가 출판된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의 도시이자, 1999년부터 세계 최초의 공예 분야 전문 비엔날레를 개최해 온 곳이며, 세계공예협회(WCC)가 인증한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 공예도시'입니다.

2년마다 개최된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매회 평균 세계 60여 개국, 1천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세계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함께 축제를 즐기고 공예의 가치에 공감해 왔습니다.

공예가 지닌 일상성과 예술성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동시대인들의 정서를 읽고 감성을 표현하는 문화 행사로, 세계와 함께 공예의 내일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는 14번째 행사로, 올해의 주제는 <세상-짓기>입니다. '짓다'는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의식주 전체의 창작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식주에 바탕을 두고 인류의 삶과 관계 맺는 공예로, <세상-짓기 Re _Crafting Tomorrow>는 미술 -디자인-건축을 아우르고, 인간-자연-사물을 연결하며, 집단의 문화를 표현하는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는 공예의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또한, 자극과 오락을 추구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에 몸의 회복과 물질적 지능을 고양시키는 공예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4일, 세계 공예 도시 청주는 세상과 공예의 가치를 연결해 공예로 세상을 짓는 역사적인 현장이 될 것입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본전시

'세상 짓기 (RE_CRAFTING TOMORROW)'

올해의 주제를 대변하는 본전시는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섹션 '보편문명으로서의 공예'에서는 인류 문명의 모태에 해당하는 공예가 진화되고 발전해온 경로를 추적합니다.

두 번째 '탐미주의자를 위한 공예' 섹션에서는 디지털 문명이 초래한 속도 과잉의 시대에 공예가 가진 신체성을 탐색하고 시각 정보 및 상징 소비에 가려져 버린 촉각적 사유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섹션 '모든 존재자를 위한 공예'에서는 자연과 지구생명체에 대한 죄책감 없는 공예를 반성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예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고민을 풀어 봅니다.

마지막 '공동체와 함께 하는 공예' 섹션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공예컬렉티브 그룹을 짓고 협업을 통해 커뮤니티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감독 강재영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Entangled and Woven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Entangled and Woven*》이 개최됩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청주공예비엔날레(한국 청주)와 휘트워스 미술관(the Whitworth,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맨체스터) 공동 기획, 인도 국립공예박물관(National Crafts Museum & Hastkala Academy, 인도 뉴델리)과의 협력을 통해 선보입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인도 국립공예박물관,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순회 전시입니다. '섬유 공예와 커뮤니티'를 주제로 공동 연구 및 교류와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인의 신작 커미션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는 국내외 예술 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전시를 선보이는 신규 프로젝트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예술 기관들이 공동적으로 주목하는 초지역적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In partnership with

 HYUNDAI